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 끝없는 사랑 주님은 신실하고/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 시선	다같이
대표기도		허영재
*성경봉독	창 38:1-5, 24-26	노지윤
말씀	신앙공동체를 떠남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신앙공동체를 떠남 (창 38:1-5, 24-26)

1 그 즈음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히라라고 하는 아들람 사람에게 갔습니다. 2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동침했습니다. 3 그녀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르라고 했습니다. 4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습니다. 5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했습니다.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었습니다. 24 석 달쯤 지나서 유다에게 “댁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 짓을 하다가 임신을 했소”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를 끌어다가 불태워 버려라!” 25 그녀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진갈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들의 임자 때문에 임신한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도장과 도장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26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7장과 39장은 요셉 이야기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38장은 갑자기 ‘유다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민망하고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깊이 숨겨진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는 복된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길 때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그 일 후 유다는 가족 형제를 떠나 아들람이라는 이방지역으로 가서 오랜 시간 혼자 살아갑니다. 요셉의 일이 그에게 큰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그는 단 하루라도 이 집안에 있느니 혼자 사는게 낫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정 공동체를 떠난 건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어떤 행동해도 아무런 제약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악한 길로 안내를 맡은 ‘히라’라는 친구가 그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런 친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유다는 히라와 거하는 중에 한 이방 여인을 만나 동침하여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는 큰 아들 엘(에르)이 장성하자 친히 이방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신앙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고,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형수를 취하라고 명합니다. (형사취수제, 신 25:5-6) 그러나, 둘째 아들 오난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한 동침을 하지 않았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오난마저 죽게 됩니다.

유다의 셋째아들 셀라는 아직 나이가 어렸습니다. 유다는 행여나 그마저 죽을까 걱정하여, 다말에게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명합니다. 이는 당시 문화나 제도상 옳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셋이나 운명을 달리했다면 유다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아내의 장례를 치르자, 친구 ‘히라’는 그를 데리고 딘나라는 곳의 양털깎는 축제장 소로 위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 소식을 며느리 다말이 듣게 됩니다. 그녀는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시아버지에게 접근합니다.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오인하여 그녀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다말은 이 일로 인해 임신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녀를 화형시키라고 분노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 때, 다말은 유다와 잠자리를 갖을 때 받았던 물건들을 보이며, ‘이 물건의 주인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힙니다. 유다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통해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베레스와 세라였는데, 큰 아들 베레스의 계보에서 다윗과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메시아 계보에 다말도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마 1:1-3) 훗날 롯기는 롯을 다말에 비유하며, ‘베레스의 집’이 복된 집이라고 말합니다. (룻 4:12)

이 일 후 유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먼 훗날,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때, 유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 희생을 자처합니다. 그가 이렇게 변한 것은 오늘 말씀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문제는 그가 가족 공동체를 떠남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한심해 보여도,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무리 상처가 되도,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정교회 말고, 교회 공동체를 의미)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오늘 유다에게서 본 것처럼

말씀산책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정적으로 완전히 자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권면을 받으시고,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수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부도덕한 유다의 자손에서 태어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돌이키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의 상처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런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오늘 말씀의 인물들 (유다, 다말, 히라, 야곱과 가족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그들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2.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때 마음은 어떠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나눠주세요.
3.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실수보다 크다는 교훈을 여러분은 얼마나 실제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나요? 그 참 뜻은 무엇일까요?

설교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부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훈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도 AKPC 장학생 선발

대상: 일반대학/대학원생 또는 신학대학/대학원생
접수: 교회 홈페이지(akpc.org)를 통해, 10월 23일(주일) 마감
문의: 장학위원회 (akpc.scholarship@gmail.com)
지정헌금으로 장학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김상범 목사님 심방

김상범 목사님께서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심방하십니다.
가능한 날짜, 시간을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중, 대면 심방 모두 가능합니다.

진행중인 청년부 심방은 10월말 종료

심방을 원하나 아직 못하신 분들은 sign-up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언제든지 심방(대면/전화), 신앙상담이 가능.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팀원 모집

찬양팀 - 건반 1, 남자 싱어 1 (문의: 조학영)
예배팀 - 카메라 및 자막 담당자 (문의: 박정호)

영과 진리의 진정한 예배를 위한 당부

예배시작은 오후 1시입니다.
찬양은 예배준비가 아닌 예배가 시작입니다.
미리 오셔서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도중 이동을 자제해 주세요.
개인용무는 가급전 예배 전에 마무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SALM 공동체 1인 1사역 권면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이해입니다.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함께할 때
공동체가 더욱 살아날 것을 기대합니다.
용기를 내서 자원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금요 Worship night 안내

청년부 찬양/기도모임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리더들의 자발적이고 자치적 인도로 진행되며
찬양과 기도뿐만 아니라 나눔과 말씀, 친교의 시간도 가집니다.
한 주간 삶에서 영적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 편안한 교제가 필요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PSALM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제 50권 40호

OCT 23
2022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오은비	eunbe.or@gmail.com
새가족 팀장	박사론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